

YONHAPI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Cover Story

新潟 순백의 대지에
발자국을 남기다

■ 사진/김주형 기자·글/박상현 기자, 협찬/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NIIGATA

어느새 감각은 깨어나 있었다. 보기 싫어 눈을 돌리고, 듣는 일이 고역이라 귀를 닫고, 접촉하기조차 꺼려져 기피했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오감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각박한 도시의 삶에서 단단히 걸어 잠가놓았던 감각을 니가타에서 찾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니가타를 여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풍경에 반응하고 자연의 소리에 경청했으며 맛있는 음식에 감동했다. 눈뿐만 아니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로 느끼는 오감,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Relaxation in Hot Spring

열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은 반대급부로 온천을 선물했다. 한겨울이면 더욱 유혹이 강렬해지는 온천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랑은 유별나다. 니가타 현에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눈송이가 흩날리는 설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온천이 많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마음이 안락하고 포근해진다.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혹은 과시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이 있다. 장군의 옷에 주렁주렁 달린 훈장처럼 ‘그 동안 가본 나라가 몇 개인가’라는 점이다. 땅을 밟아본 나라가 10개를 넘으면 웬만큼 다닌 것이고, 앉은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으면 여행 고수일 것이라 추측하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한 국가에서 진득하게 여행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처럼 소위 말하는 ‘핵심 일주’를 선호하는 듯하다. 그런데 여행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라 횡수나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외국인이 서울에서 단지 2박 3일을 체류한 후에 ‘한국을 여행했다’고 떠들어댄다면 왠지 염치없고 밉상스럽게 보일 것이다. 한반도에는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 숨겨진 볼거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껏해야 3~4일에 불과한 도쿄나 오사카 여행만으로 ‘일본을 여행했다’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 일본은 의외로 넓은 나라다. 역사적으로 쌓아왔던 좋지 않은 감정 탓인지 자꾸 일본을 ‘작게’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한반도 면적보다 넓고 기다란 나라다. 규슈의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의 삿포로까지 가려면 기차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18시간 가까이 걸린다. 3시간 안팎의 서울과 부산 사이에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많은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 열도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볼만한 곳들이 많다. 특히 동해에 접해 있는 일본의 여행지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대부분 외면하고 지나치는데, 그만큼 순수하고 일본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진정한 설국, 유자와 쯔메 눈(雪)을 볼 날이 없는 도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데도 니가타의 유자와(湯澤)에는 눈이 엄청나게 내렸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소설 ‘설국(雪國)’에서 주인공 시마무라는 귀를 싸매고 고무장화를 신고 역으로 마중 나온 안내원의 모습에 놀라는 것으로 묘사된다. 강설량이 보통은 일고여덟 자, 많으면 열두서너 자를 웃돈다는 다설 지역 유자와는

고요했다. 눈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였다. 몇 시간 만에 차에 눈이 쌓이고 길도 눈으로 뒤덮여서 차로를 분간할 수 없었다. 회색빛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은 사물의 실루엣만 남기고 만물을 삼켜버릴 듯했다. 몇 시간 뒤엔 갑자기 탐스러운 눈송이가 온화하게 흩뿌렸다. 막연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하고 청량해졌다. 눈꽃이 빗어낸 설경도 고혹적이지만, 작은 마을에 눈이 오는 경치도 소담스러웠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유자와의 료칸에서 경험했던 사연을 토대로 작품을 집필했다. 유자와에는 지금도 온천을 갖춘 료칸이 준비하다. 이 지역의 온천은 철도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동네 주민들의 약탕으로 이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행자의 입장에서 온천의 자질구레한 효능이나 명성보다는 바깥을 바라보며 몸을 따뜻하게 담글 수 있는 노천탕이 더욱 끌리기 마련이다. 유자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료칸 ‘후타바(雙葉)’에는 옥상에 노천탕이 있다. 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눈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형언할 수 없는 절경도 아니고, 흔하디흔한 일본일지도 모르겠지만 노천탕에서 바라보는 순백의 유자와는 예뻐다. 눈이 오는 세상은 언제 봐도 순결하고 맑다.

몸을 녹이고, 마음을 풀다 니가타는 정적이고 안온한 여행지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발도장

을 찍기보다는 ‘쉬러’ 가기 적당한 장소다. 일상의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에게 부단히 돌아다녀야 하는 여행은 고행일 뿐이다. 삶이 고단할 때면 머릿속의 상념을 잊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칩거하고 싶은 법이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곳이 니가타 현이다. 유자와에서 멀지 않은 무이카마치(六日町)에는 전통 료칸인 ‘류곤(龍言)’이 자리하고 있다. 료칸은 하룻밤 사이에 일본의 문화와 정서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숙소다. 1박 2식으로 구성되는 료칸에서 여유 있는 휴식을 취하려면 일찌감치 도착하는 편이 좋다. 료칸에서는 저녁식사 시간을 예약하고 난 뒤에 마땅히 할 일이 없지만 주위에 배치된 정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거나 노천탕에 몸을 담글 수 있다. 이렇게 쫓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노천탕을 의미하는 일본어 ‘로텐부로(露天風呂)’는 곱씹을수록 낭만적인 단어다. 이슬과 하늘, 바람과 음률을 뜻하는 로텐부로는 노천온천에서 느끼는 행복을 모두 나타낸 듯하다. 실제로 류곤의 온천에 몸을 담그니 코끝으로는 냉기가 엄습했지만 몸은 이내 따뜻해졌다. 앞으로는 새하얀 설경에 덧대 눈발이 날렸고, 가끔씩 불어오는 찬바람은 얼굴을 씻고 지나갔다. 대지는 얼음장 같았지만 물은 따스했고, 머리는 차가웠으나 가슴은 뜨거웠다. 자연의 청정한 공기로 호흡하면서 온천에 몸을 맡겼다. 나카이사이라 불리는 여종업원의 극진한 서비스도 여행이 느긋해지는 이유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허리를 숙여 깎듯하게 인사를 하고, 곧 일본 전통의 과자와 차를 내놓는다.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봐주고 아침을 먹는 동안에는 방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봉사한다. 니가타에는 이름난 온천이 많은 만큼 유명한 료칸도 많다. 도시에서 멀찍이 떨어진 료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느슨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료칸의 참맛과 여행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쭉



Foot Bath in Yuzawa

절경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마주하게 되는 ‘설국’ 유자와, 에치고유자와 역은 소설 설국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다. 지금은 신칸센 역으로 바뀌어서 감흥에 젖기에는 다소 힘들지만 여전히 온천과 료칸, 스키장이 모여 있다. 역 앞에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 요령인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족탕이 마련돼 있다.

니가타의 온천

츠키오카 온천(시바타 시) ‘미인이 되는 온천’으로 유명하다. 황화수소 함유량이 일본에서 최고로 많으며 이곳에서 온천을 하면 피부가 매끈해진다고 한다.

고즈온센교 온천(아가노 시) 니가타 현의 온천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으로 봉우리 5개가 주위에 있다고 하여 고즈(五頭)라고 불린다. 온천뿐만 아니라 등산이나 캠프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이와무로 온천(이와무로 무라) 에도시대에 생겨난 온천으로 니가타 해안선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니가타 게이샤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온천은 신경통과 류머티즘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세나미 온천(무라카미 시) 겨울 바다와 노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 압권인 온천이다. 해가 질 때 온천욕을 즐기면 더욱 아름답다.

마츠노야마 온천(마츠노야마 마치)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쿠사츠 온천, 아리마 온천과 함께 일본 3대 약용 온천으로 꼽힌다. 신경통과 류머티즘,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으며 온천수를 마실 수도 있다.

아카쿠라 온천(묘코코겐 마치) 일본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묘코 산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온천 지대다. ‘피부 미인 온천’, ‘천연 화장수’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한다. 또한 ‘온천 소믈리에’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 온천의 효능과 입욕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Kaiseki

눈과 입이 행복한 진수성찬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아름다운 음식. 입보다 먼저 눈으로 먹는다는 일본 음식의 정수는 단연 가이세키(会席)다. 입에 넣기 아까울 정도로 곱게 처리된 모양새에 젓가락을 갖다 대기가 두려워진다. 하지만 차고로 음식은 입에 넣고 목으로 넘겨야 진가를 알 수 있다. 과연 빛 좋은 개살구인지 명실상부한 진수성찬인지 판단하려면 말이다.

신선한 계절 야채와 생선을 이용하는 것이 일본, 특히 료칸 요리의 특징이다. 니가타 현에는 산, 평야, 바다, 강이 모두 있어서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요리의 주인공이 되는 해물과 주식인 쌀이 매우 맛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요리사들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을 거쳐 진미로 탄생된다. 좁고 눈이 많이 내리는 니가타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들이 많다.



연어에게 감사하는 작은 마을村上

등아줄에 묶여 있는 커다란 연어를 보는 순간 문득 자린고비가 떠올랐다. 수많은 연어를 처마 아래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광경을 그가 목격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자못 궁금해졌다. 당장 상 위의 간장을 치워버리고 가위로 줄을 싹둑 잘라 굽비 대신 연어 한 마리를 식구들에게 내놓지 않았을까.

Murakami



일본 열도 최고의 술 酒

일본 여행 중에 선술집인 이자카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양한 청주가 진열돼 있기 마련이다. 이름만으로는 맛이나 향을 전혀 분간할 수 없어서 수십 종류의 술 앞에서 당황하기 일쑤다. 기껏해야 두서너 종에 불과한 소주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풍부하게 구비된 일본술을 고르는 시간이 고역일 수밖에 없다.



家 일본의 부자집을 엿본다, 북방문화박물관

방이 60개가 넘는 커다란 목조 가옥은 일본의 부자 가운데서도 첫손에 꼽혔던 이토 가문의 저택이다. 지금은 북방문화박물관(北方文化博物館)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변경됐지만 당시의 위풍당당한 위세와 재력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예부터 곡물이 풍부했던 니가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가는 법 : 니가타 시에서 버스로 45분, 자가용으로는 25분 소요, 니츠(新津) 시에서 버스로 15분 소요
오전 8시~오후 5시(12~2월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입장료 어른 800엔 · 중학생 이하 600엔,
025-385-2001

INFORMATION _niigata

‘니가타’라는 지명은 생소하지만 동해안에 면한 일본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곳이다. 19세기 중반 에도 막부가 하코다테(函館),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戸), 나가사키(長崎) 등 4개 도시와 함께 외국 세력에 문호를 개방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니가타 현은 일본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기본 정보 도쿄에서 북쪽으로 쪽 올라가면 모습을 드러내는 니가타 현은 위로는 야마가타(山形) 현, 오른쪽으로는 후쿠시마(福島) 현, 아래로는 군마(群馬) 현과 나가노(長野) 현, 왼쪽으로는 도야마(富山) 현과 접하고 있다. 사도 섬도 니가타 현에 속해 있다. 면적은 약 1만2500km²이고 인구는 약 250만 명이다.

가는 방법 대한항공이 매일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니가타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7시 30분에 도착하며,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인천에는 정오에 닿는다. 일본 안에서는 오사카(大阪), 고베,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오키나와(沖縄), 삿포로(札幌)에서 국내선이 운영된다. 오사카에서는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편도 운임은 대략 2만5000엔이다. 도쿄에서는 조에츠(上越) 신칸센을 타고 가면 니가타 시까지 1시간 37분~2시간 28분이 소요된다. 신칸센 요금은 약 1만 엔이다.

현지교통 니가타 현 안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려면 JR선을 타고 간 뒤 버스로 갈아타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스키장은 니가타 시내 호텔에서 연락하면 버스가 시내까지 오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다. 료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차를 타고 가까운 역으로 가서 료칸에 연락하면 승용차가 나오기도 한다.

비자, 환율, 전압, 기후 현재 일본 여행은 90일 이내라면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최근 환율은 일본 여행을 하기에 매우 좋을 정도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화를 엔으로 바꿀 때 100엔이 800원이 되지 않는다. 800엔짜리 정식을 먹어도 6000~7000원 정도라는 얘기다. 전압은 한국과는 다른 100V를 사용한다. 니가타 현은 서울보다 날씨가 따뜻하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온은 니가타가 높다. 연중 강수량이 많은 편이며 2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0.3℃, 최고기온은 5.4℃다. 니가타 시내에서는 눈이 내리더라도 빨리 녹아서 길이 질척질척하다. 다른 계절은 서울과 기후가 비슷하다.

니가타 현 내 셔틀버스 니가타 공항에 내린 여행객이 시내 호텔에서 투숙한다면 이제 교통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쿠라 호텔, 스타 호텔, 닛코 호텔, 반다이 실버 호텔, 니가타 도큐인, 호텔 선루트, 워싱턴 호텔 등 7개 호텔에서는 공항-호텔 셔틀버스 서비스인 ‘니가타 웰컴 플랜(Niigata Welcome Plan)’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을 떠나 니가타에 도착하면 오후 8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셔틀버스를 타면 편리하다. 보통 니가타 공항에서는 오후 8시에 출발하며, 귀국 항공기를 탈 때는 오전 8시 15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운행된다. 이 셔틀버스에 탑승하려면 투숙하기 3일 전까지 숙박 예약을 해야 하며, 1명도 신청할 수 있다. 니가타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대략 30분이 걸리며, 택시를 타면 요금이 2000~2500엔 정도 나온다. 편도만 이용하면 무료이고, 왕복으로 타면 500엔의 추가 비용이 든다. 니가타 현 내의 스키장에 가고자 할 경우에는 니가타 시내 호텔에서 전화를 걸어 버스를 부를 수 있다.

사도(佐渡) 섬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등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에서 이들 섬과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이다. 니가타 시에서 고속 페리로 1시간 여 떨어진 사도에는 신선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과거에는 세력 싸움에서 패배했던 귀족들의 귀양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금광이 발견돼 골드러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섬으로 변모했다. 사도 섬에는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선과 아름다운 산이 위치해 있어서 일본의 색다른 자연을 경험하기에도 좋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새인 따오기가 사육되고 있다. 니가타 시 사도기선 터미널에서 사도 섬의 료츠(兩津) 항까지 1~2시간에 1대꼴로 배가 운항되고 있다. 고속선인 제트 포일은 1시간, 카페리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편도 요금은 각각 5960엔, 2060엔이다. 니가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가는 방법도 있는데 25분이 걸리며 편도 운임은 7350엔이다.

미나토피아 2004년 3월에 새롭게 건립된 니가타 시의 역사박물관이다. 항구 도시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니가타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있다. 건물은 100년 전 시청사를 모델로 해서 지어졌다.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국어의 음성 가이드를 비치해두고 있다. 입장료는 어른 300엔, 고교·대학생 200엔, 초·중생 100엔이며 오전 9시 30분에 개장해 오후 6시(동계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www.nchm.jp, 025-225-6111

'백조의 호수' 호고(瓢湖) 아가노(阿賀野) 시에 위치한 호수로 겨울이면 백조와 오리들이 날아온다. 본래 마을에 용수를 공급하는 연못이었던 호고에는 새들이 많았으나, 염충이 보급되면서 새들의 수가 격감하게 됐다. 그러던 중 철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할아버지가 등장해 다시 숫자가 늘어났다. 새들은 10월초에 날아와 3월말에 돌아가며, 인간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으면서 자란다. 보통 4000~5000마리의 새들이 몰려든다. 근처에는 백조의 생태와 보호 역사를 알려주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도키 멧세 니가타 현을 상징하는 새인 따오기는 일본어로 도키(トキ)라고 부른다. 도키 멧세는 니가타 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동해와 시나노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복합 컨벤션 센터다. 31층의 전망대에 오르면 니가타 전역이 한눈에 보인다. 5층에는 니가타 현립 미술관도 있다. 3월에는 니가타 현의 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케노진(酒の陣)이 열린다. 니가타 마쓰리 매년 여름이면 일본 전역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니가타 시에서도 8월 7일부터 3일간 검은 하늘을 색색의 빛으로 수놓는 불꽃놀이가 열린다.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불꽃은 모두 1만2000발이다. 마쓰리의 절정은 1만8000명이 도심을 메우고 니가타의 민요에 맞춰 시내를 행진하는 것이다.

스포리아 유자와 소설 ‘설국’의 무대인 유자와의 시내에 있는 호텔로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일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가 특징이다. 211개 객실이 있으며 꼭대기인 13층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느긋하게 만끽할 수 있는 노천탕이 있다. 신칸센으로 도쿄 역과 니가타 역의 중간쯤에 있는 에치고유자와(越後湯澤)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www.sporea.co.jp, 025-784-1112

로열 타이나이 파크 호텔 타이나이 스키장 인근에 있는 호텔로 외관이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킨다. 타이나이 스키장은 니가타 시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으로 코스는 15개다. 넓고 쾌적한 객실이 특징인 로열 타이나이 파크 호텔 외에도 타이나이 파크 호텔과 뉴 타이나이 파크 호텔이 붙어 있다. JR 나카쵸(中條) 역에서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된다. 호텔까지는 약 20분이 걸린다. www.tainai.info, 0254-48-2211

오쿠라 호텔 니가타 니가타 시를 대표하는 명물인 만다이하시(萬代橋)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로 일본식 객실 2개, 스위트룸 7개를 포함해 객실 290개를 보유하고 있다. 회의, 리셉션, 전시회 등이 열리는 대형 강당과 크고 작은 연회실을 갖추고 있다. 15층에는 니가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일식, 초밥, 중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다. 자동차로 니가타 공항에서 20분, 니가타 역에서 5분이 소요된다. www.okura-niigata.com, 025-224-6111

센케이(泉慶)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츠키오카(月岡) 지역에 있는 현대식 건물의 료칸이다. 노천탕에 들어가면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진동한다. 온천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백옥의 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일본 특유의 세심한 서비스와 가이세키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위쪽에는 신관 건물인 가호(華鳳)도 있다. 니가타 역에서 기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토요사카(豊栄) 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www.senkei.com, 0254-32-1111

반다이 실버 호텔 니가타 시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의 쇼핑센터인 반다이 시티 건물의 4층부터 10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층에는 각종 쇼핑몰이 있고, 2층에는 기노쿠니야 서점, 3층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다. 주위에는 이세탄 백화점이 있어서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자동차로 공항에서 20분, 역에서 5분이 소요된다. www.silverhotel.co.jp, 025-243-3711

류곤(龍言) 무이카마치(六日町)에 있는 일본 전통 료칸으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에도 시대 부자였던 사람의 가옥을 이전해 다시 건축했으며 최상의 서비스와 눈 덮인 정원이 보이는 노천탕이 자랑거리다. 휴자는 필요 없는 공간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했다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욱 매력이 느껴진다. JR 무이카마치 역에서 택시로 5분 거리다. www.ryugon.co.jp, 025-772-3470

후타바(雙葉) 28개에 이르는 탕이 특징인 료칸이다. 꼭대기인 7층에는 산, 마을, 하늘의 3가지 주제 아래 동굴탕, 찜는 탕, 거목탕, 대형 온천탕 등이 있다. 천천히 온천욕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JR 에치고유자와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www.hotel-hutaba.com, 025-784-3357

관련 사이트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www.niigata.or.kr, 02-773-3161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 www.welcometojapan.or.kr, 02-777-8601, 02-777-8612(Fax)

[▲ top](#)